

# 마약류정책,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마약퇴치연구소가 컨트롤타워 될 것

‘마약류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방향’ 심포지엄 개최  
제4회 마약퇴치학술대상 ·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일시 2016년 11월 28일(월) 13:30

장소 그랜드컨벤션센터 그랜드홀(영등포 당산동)

주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 부설 마약퇴치연구소

## 마약류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방향



우리나라 마약류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이경희) 부설 마약퇴치연구소(소장 이범진)는 지난 11월 28일 서울 당산동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마약류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범진 마약퇴치연구소 소장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국내 마약정책의 최고의 권위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매년 마약퇴치연구소가 주최하여 마약퇴치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며 “마약퇴치연구소가 국가 마약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등의 적극적 관심과 예산지원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전수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변호사의 사회로 제4회 한국마약퇴치학술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학술대상에 △박성수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정재훈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에게 시상했다. 아울러 마약퇴치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방기성)과 우수상(이재규, 이향이) 수상자에게 각각 시상했다.

마약퇴치학술대상 수상자 특별강연으로 박성수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내외 마약문제 분석실태 및 마약피해정도 정량화 지수 개발연구’라는 주제로,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정재훈 교수는

‘Development of an animal model for drug addiction through a novel paradigm’이란 주제로 각각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좌장을 맡은 김현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의 진행으로 박귀래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의 △국제마약기구의 역할과 동향 △마약류중독 치료재활 실태와 대책(조성남 을지대병원 원장) △마약류 예방, 재활교육 현황과 발전방향(손애리 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 교수) △신종마약류 관리대책 및 현황(강미선 식약처 마약정책과 주무관) △마약류 단속규정 구성요건 정리 및 양형 합리화-마약류사범의 효과적 제재 및 재활 실현(김슬기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경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부설 연구소를 통해 새로운 마약류 정책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기존 제도와의 간극을 줄이고 새로운 정책방향의 정립에 기여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감기약으로 마약을 제조한다는 언론보도를 봤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마약퇴치운동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한국이 마약청정국가의 위치를 공고히 유지할



심포지엄에 앞서 진행된 제4회 한국마약퇴치학술대상 시상식에서 학술대상을 수상한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과 교수와 정재훈 삼육대 약학대학 교수가 이경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이범진 마약퇴치연구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현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귀례**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



**조성남**  
을지대학병원 원장



**손애리**  
삼육대 보건복지대학 교수



**강미선**  
식약처 마약정책과 주무관



**김슬기**  
대전대 법학과 교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환 형사정책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외 마약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지향하는 마약퇴치운동본부와 마약퇴치연구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나라 마약류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형사정책연구원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명예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마약퇴치운동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만의 것이 아니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기에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한 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내빈으로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한 김진환 형사정책연구원장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명예이사장, 허근 전 식약청장, 전영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고문, 정순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구본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한홍외 인클로버재단 이사장, 김득린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구본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감사, 김성수 한국첨단산업교류협회장과 김종환 서울지부장을 비롯한 전국의 12개 지부 지부장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다.

# “마약피해지수가 마약정책 수립 기준 결정”

박성수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이번 연구를 하게 된 목적은?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2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피해자 없는 범죄’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피해 실태나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마약범죄 실태 현행 마약 무제 분석기법의 활용 상황을 확인할 것입니다. ‘마약피해지수(Drug Harm Index)’를 활용하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고 도입의 필요성과 피해지수 방법을 제시하며 기대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국내의 마약문제 분석실태 및 마약피해정도 정량화 지수 개발 연구’에 대한 목적입니다.

## 연구 성과가 있다면?

‘마약피해지수’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마다 개념이 다소 다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형사사법적 처벌 비용, 의료·복지적 지원 비용, 노동생산성의 손실 비용, 기타 삶의 질 저하 등 무형적 비용 등을 망라한 사회적 손실 비용 자체를 ‘마약피해지수’ 개념과 동일시 사용합니다. 영국은 호주 및 뉴질랜드와 같이 파악된 사회적 손실 비용을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기준치 100을 설정하고 연도별로 그 비용의 증감에 따라 변화된 지수를 보이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및 유럽 각 국가 등 주요 국가들에서는 나름대로 마약피해지수를 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약문제에 의한 사회적 손실 비용을 피해지수로 간주하여 관리하는 국가도 있고, 손실비용을 기준년도와 비교하여 지수화하여 관리하는 국가(영국 등)도 있습니다. 마약피해지수를 산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적발 건수 등 양적인 지표와 병행하여 활용함으로써 마약문제에 대한 입체적인 수치 확인이 가능하며 나아가 마약 문제의 질적 심각성의 증감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남용에 대한 문제로 범죄통제비용, 사회적 파괴비용과 같은 사회적 손실은 증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손실 비용에 대한 추계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등 유해약물이 끼치는 사회적 손실의 정도가 계량적인 수치로 제시되지 못하다 보니 관련 정책의 수립이나 시행에 있어서

도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비용-편익적인 요소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제대로 포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마약류시장을 제재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 정책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비용 또는 피해를 추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지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며 그에 따른 정책수립 및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정상인과 달리 ADHD 환자에선 ‘MPH 의존성’ 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재훈**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연구하게 된 동기는?

다양한 유전적 요인들이 중독의 형성에 관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약물 중독 반응의 유전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는 약물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표적 또는 의약품 개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최근엔, ADHD 환자에게 사용되는 향정신성약품(의존성이 있는)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의존 반응 형성에 기초하여 ‘Development of an animal model for drug addiction through a novel paradigm’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연구 성과가 있다면?

ADHD 환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이하 MPH)라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와 기면증의 치료제의 의존 반응 형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MPH는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한 암페타민 계열의 약물입니다. 한 때, MPH는 수험생들에게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지면서 그 약물의 남용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ADHD 아이의 부모들은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는 MPH 약물의 사용을 꺼려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연구실에서 수행된 동물실험 결과에 따르면, MPH는 마약류로서 정상동물에선 강한 의존반응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지만, ADHD 모델 동물에게 일정기간 투여하면 의존반응이 약화되거나 사라졌습니다. 즉, ADHD 환자들이 장기간 이 약물을 복용할 때, 중독성이 약화되거나 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입니다. 미국 등에서 시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ADHD 약물 치료를 받은 아이들은 치료를 받지 않는 아이들에 비해 다른 중독에 빠지는 비율이 현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동물 실험결과와 유사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 근거하여 정신흥분성 마약류들의 주요 중독 요인을 유전적 요소에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최근 그 유전적 실마리를 찾았고, 그러한 유전적 요소가 변형된 동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즉, 중독을 질병이라고 간주하면, 중독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전적 요소를 찾아내었고, 질병 연구의 기본이 되는 중독질환 동물모델의 구축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진단기술이 발전되고 부모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ADHD 질병 보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MPH가 마약류라는 인식 때문에 그 사용을 꺼립니다. 반면, 학력고사 시즌인 10월이 되면 MPH 처방 건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상인들 특히, 청소년들의 MPH 사용은 중독을 부르고, 그 중독은 더 강한 환각약물의 중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약물 중독을 질병으로 간주하지만 아직까지 중독자를 위한 효과적 치료제가 없습니다. 저의 연구는 정신신경 흥분약물의 중독 원인을 찾고,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